

4. 가족계획 교육 및 실천의 결과를 계속 평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.
경북 의역군 내 6개의 무료지역을 선정하여 1978년 7월 24일 현재로 5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 190명을 대상으로 이유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A. 5세까지 이유완료된 63.7%의 선유아에서,

1) 이유완료시기를 보면 12개월에 완전 이유된 경우는 17.4%에 불과하고 평균 이유완료시기는 생후 19개월이었다.

2) 이유완료까지 영유아의 주식이 모유만인 경우가 75.2%였고, 모유와 우유 혼합 14.9%, 모유와 기타 식품 혼합 9.9%로 나타났다.

B. 이유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대상 모의 1/3에 해당하는 72명만이 알고 있었고, 나머지 2/3(118명)은 전혀 이유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.

1) 알고 있었선 어머니인 경우 3~6개월에 이유시작한 경우는 26.3%이고, 평균 이유시작 연령은 7 1/2개월이었고,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3~6개월에 이유시작한 경우는 16.1%이고, 평균 이유시작 연령은 9 1/2개월이었다.

2) 이유식을 처음 제공할 때 유동식 내실 반유동식의 형태로 시작한 것은 이유법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모두 19.5%에 불과하다.

3) 완전이유시를 보면 12개월 완료된 경우는 지식이 있었던 모의 경우 실천율 17%이고, 지식이 없었던 모의 실천율 7%이며 전체 37%가 이유완료된 시기를 모르고 있다.

C. 전 수유기간을 통해 영양제 공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 이상(58.4%)이고 나머지는 원기소, viovita 등의 소화제 복용이 22.6%로 가장 많았다.

이상의 결과로 해당되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영유아에게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유 실시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, 다소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지식이 아니고 또 농촌의 경제 사정상 바람직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
이에 본 연구자는 관계 당국과 지역사회 지도자 및 모든 의료진들이 협조하여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이유실시 전반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됨과 동시에 농촌경제 사정에 맞고 쉽고도 간편하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이유식을 시급히 연구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.

산후관리에 대한 한국 산욕부들의 지식 및 관습 조사

대한간호, Vol. 17, No. 2, pp. 74~90, 1978.

변수자

한국 산모들의 산후관리에 대한 관습 및 지식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20일부터 1978년 1월 8일까지 서울시내에 위치한 6개 종합병원의 산과 또는 부인과 병동에 분만후 입원한 산모 208명을 무선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영양, 휴식과 운동, 개인위생, 회음 및 유방관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영양관리에 대한 지식 중 아기의 수유때문에 평상시 보다 열량이 더 첨가 되어야 한다는 지식에 75%의 산모들이 모르고 있었으며, 음식중 자극성 음식, 제사 및 뚝, 잔치 음식, 딱딱하고 찬 음식에 대해 많은 산모들이 금하고 있다.

2. 회음관리에 대한 지식 중 회음부 상처 부위의 불편에 관한 관리와 Lochia 가 있는 시기에 대해 71%의 산모들이 모르고 있다.

3. 개인위생 관리는 구강간호, 세발, 샤워등에 대해 치아가 상한다. 바람이 두렵다는 관습에 의해 80%의 많은 산모들이 산욕기 동안에 하지 것으로 나타났다.

4. 휴식과 운동관리는 산욕기간과, 적절한 운동 방문객 제한의 이유등에 과반수 이상의 산모가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과 시모 및 친정모임에 의해 산후관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5. 유방관리는 많은 산모들이 잘알고 있었으나 수유전 젖꼭지관리에 대해 65%의 산모들이 잘못 알고 있었으며 이는 청결에 대한 관념의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.

6. 표집 대상자들의 산후관리에 대한 지식은 시모 및 친정모에 의해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간호사이나 산전진찰을 통해 얻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.

7. 본 설문지의 지식정도에 대한 득점 결과는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1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별, 종교별,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본 연구의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.

1. 실제적인 산후관리의 재래적인 습관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더 큰 규모의 광범위한 대상으로 시모 및 친정모 등 산후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 실시 하여 본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사려된다.

2. 병원 분만 보다는 가정분만한 대상자의 표집에서 한국적인 산후관리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.

가족간호에 관한 문헌적 고찰

— 보건간호학적 견지에서 —

강릉간호전문학교 논문집 제4집, pp. 115~127, 1978.

윤 양 소